금강경 6만독 공덕 시각장애인에 회향

법산 스님, 1월 9일 금강경 6만독 회향기념법회 봉행

연화원 광림사서 시각장애인과 법회
회향을 기념해 '점자 〈금강경〉'보시
법산 스님 "마음 속 광명일길" 법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前 이사장 법산 스님은 1월 9일 6만독 회향 공덕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하며 '점자 〈금강경〉' 보시로 회향했다.

동국대 前 이사장 법산 스님이 1월 9일 6만독 회향 공덕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하며 '점자 〈금강경〉' 보시로 회향했다. 부처님 성도재일을 하루 앞두고 연화원 광림사에서 50여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한 〈금강경〉 독송 현장은 연화장 세계 그 자체였다.

연화원 광림사(주지 해성)는 1월 9일 '법산 스님 〈금강경〉 6만독 회향기념법회' 를 개최했다. 법산 스님은 동국대 교수 정년퇴임 후 2001년 11월 17일 〈금강경〉 독송 10만독을 서원하고 행주좌와 정진, 구랍 29일 밤 9시 통도사에서 6만독을 회향했다.

법산 스님은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품수를 받은 어른스님이지만 대중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다. 스님이 제방 선방 수행부터 〈금강경〉 독송 등에도 꼭 빼먹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장애인 포교의 중심인 연화원 광림사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법문하는 것이다. 이번 6만독 회향을 기해 시각장애인들에게 공덕을 나눈 것도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어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자는 염원 때문이다.

스님은 모인 시각장애인 불자들에게 "〈금강경〉 독송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요, 마음을 비우는 길이요, 참회하는 길이요, 자성을 찾아가는 꽃길"이라며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금강경, 들리지 않아도 보이는 금강경을 눈으로 읽고 손끝으로 읽는 이 곳이 작은 부처님 수행처"라고 함께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법산 스님의 〈금강경〉 독송은 매회 장애인불자들을 위한 회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봉은사에서 진행된 3만독 독송 회향법회서는 첫 점자 〈금강경〉이 봉정됐으며, 은해사에서 진행된 4만독 독송 회향법회서는 첫 점자 불교염불집이 출간됐다.

해성 스님은 "1988년 최초의 장애인포교원인 원심포교당에서 수화교육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법산 스님"이라며 "불교계 곳곳에서 수화통역사들이 활동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안거기간에도 장애인 불자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주신다. 스님의 도움으로 봉은사 장애인 안내소를 비롯해 통도사 경사로 등 장애인 불자 신행에 대한 배려가 점점 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해성 스님은 이어 "저희 도반들도 최근 점자 〈금강경〉 만독을 했다고 한다. 큰스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정진해주시며 함께 몇독씩하면서 환희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향법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조영섭 씨의 기타연주 및 류정숙 씨의 수어노래, 능인 스님의 에어로폰 연주, 전원주, 김경애, 한강 씨의 축가공연 등이 이어졌다.

국제포교사회, 봉암사명상마을 세계 알린다

1월 11일 양 기관 홍보 업무협약

각산 스님 "간화선 세계화에 일조"
이재홍 회장 "글로벌 포교 일환"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한국 간화선 대중화의 중심지인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을 해외에 홍보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과 홍보 및 외국인 포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문경 봉암사 인근 8만 4000여 ㎡ 부지에 참선수행과 명상이 가능한 선방(명상홀)을 비롯해 리조트형 명상숙소, 참선수행자 전문 숙소 꾸띠(개인 수행처), 무문관, 그 밖의 다양한 부대시설로 구성된 간화선 대중화의 중심지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4월 20일 개원 예정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에 관한 것이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개원과 함께 1주일간 대원 스님(학림사 조실), 영진 스님(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정찬 스님(대흥사 선덕) 등을 초청해 간화선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선원장 각산 스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행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국제포교사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행에는 출가자와 재가자 구분이 없다. 불교 지식인인 국제포교사들도 외국인들을 지도하며 함께 수행해 스스로의 스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홍 국제포교사회장은 "간화선 세계화와 불교 포교를 위해 봉암사 정신과 수행정신을 세계인들에게 전할 것"이라며 "국제포교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글로벌 포교와 시너지를 내 더 많은 이들이 한국불교의 매력을 알고 함께 정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1월 8일 전법회관에서 2022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대면과 비대면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포교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제60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에 조석주 부산지부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제60년차 신임 중앙회장에 기호 2번 조석주 후보가 당선됐다.

대불련은 1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과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60년차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선거를 열고 조석주 대불련 부산지부 지부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경선 구도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3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조석주 후보가 54명의 선거인 중 34표를 얻어 당선됐다.

조석주 신임회장은 2019년 대불련 부산지부 동아대 불교학생회에 입회 후 부산연등행렬, 템플스테이 등에 참가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동아대 불교학생회장과 부산 지부장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쪽방촌에 전해진 '까만 자비온정'

(사)자비명상, 1월 9일 영등포 쪽방촌 연탄나눔

자원봉사자 3000장 연탄 전달
27일 천도재 및 상담소 개소도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연탄을 실은 리어카를 직접 끌고 쪽방촌에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손도 얼굴도 연탄재가 묻어 까맣지만 이를 전달하는 이들의 표정만큼은 하얗게 빛났다. 사단법인 자비명상(대표 마가) 산하 자비나눔공덕회는 1월 9일 영등포쪽방촌에서 쪽방촌도우미봉사회와 함께 '자비의 연탄나눔' 을 진행했다. 총 3000장의 연탄나눔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공덕회 소속 50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임원도 참석했다.

연탄나눔은 구랍 22일 영등포 쪽방촌에서 동지팥죽나눔을 진행한 마가 스님이 추위로 떨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사연을 접하며 이뤄졌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850원. 하루 2장의 연탄 조차 없어 강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을 위해 자비나눔공덕회 회원들은 십시일반 정성을 보탰다. 쪽방촌 입구에 쌓인 연탄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마가 스님은 "지난 연말 와서 보니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았다. 추위에 떨고 있을 이들을 생각하니 따뜻한 곳에 있으며 항상 마음이 아팠다"며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상담소도 쪽방촌에서 곧 개소할 예정이다. 직접 이들의 사연을 듣고 마음을 어루만져 새해 다시 힘차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1월 8일 제60차 대불련 회장 선출 이후 첫 활동으로 연탄나눔에 참여한 조석주 회장은 "첫 경선이라는 과분한 관심 속에서 선출이 되어 어깨가 무겁다. 봉사를 통해 불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높이고 대불련 법우들에게 약속한 공약도 하나씩 지켜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오늘 연탄나눔에 참여한 스님과 불자들의 모습을 보며 새해 새로운 각오가 싹텄다"고 말했다.

한편, 자비명상과 자비나눔공덕회는 1월 27일 오전 10시 영등포쪽방촌에서 설떡국 나눔과 함께 고독사한 쪽방촌 주민을 위한 합동 천도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쪽방촌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소도 개원한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2022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

제 12회 원효학술상, 제 4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제5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제4기 불교기관 지원사업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불교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를 위해 2022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연 2회 실시하는 4대 공모사업은 △2009년 제정돼 매년 시상하는 '원효학술상'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불교 관련된 학술 · 콘텐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등이다. 올해부터는 '대원청년 불자 · 동아리상' 에서 동아리상 부문은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제12회 원효학술상 접수기간은 2022년 2월3일부터~3월4일까지이며,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하면 된다. 시상 부문과 상금은 학자부문 저서(1명) 3000만 원, 특별상(약간 명) 1500만 원, 석박사 과정 학생 부문 논저(약간 명) 300만 원~800만 원이다.

제4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장학금과 동아리 활동비용이 지원된다. 개인부문 대학생 · 대학원생에게는 300만 원, 단체 부문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에는 50만 원,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와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에는 각각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1월17일부터 2월11일까지다.

제5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지원금은 불교 학술 부문과 콘텐츠로 나눠 지원된다. 선정된 학술 저서에는 500만 원~1500만 원, 번역서에는 300만 원~1200만 원이 지원된다. 불교 콘텐츠 부문은 만화 · 동화 · 불교 독립영화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또는 실행에 500만 원~1200만 원이다. 접수기간은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다.

제4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지원은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모가 이뤄지며, 1개 기관마다 100~5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4대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